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 영혼구원을 위한 주님의 투자 (마 8:28-34)

### The Lord's investment for saving a soul (Matt. 8:28-34)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살전 5:16-18).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와 쉬지 않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구원은 오직 우리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기쁘고 행복할리 없고, 인간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니가 하나님의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아프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 has a special plan for us who are in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in Christ should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an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 Thess. 5:16-18). In other words, 'You had better be always joyful. You had better have intercourse with me without ceasing. You had better live happily.' This is God's will and desire for us.

That's right. All of God's thinking, will, and salvation are only for us. Nevertheless, human beings who are precious to God leave his home and live their life different from God's plan. Because they are not happy, joyful, and pleasant, there is no word to explain how much pain God experiences.

The text clearly showed us the appearance of human beings who leave God.

#### 1.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처절한 현실

#### 1. The desperate reality of human being who leaves God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사납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셧습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Two demon-possessed men in the region of Gadarenes had lived among the tombs. They were so violent that no one could deal with them. They shouted day and night between tombs on the mountain and were their own enemy.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대상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처절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As the target men who took after God and were target men of God's love and providence lived a desperate and miserable life, how painful it was for God?

#### 2.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아낌없는 투자

#### 2. Jesus bountiful investment for saving a soul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자 귀신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Upon meeting Jesus, two demon-possessed men shouted, "Son of God! What do we have to do to be with you?"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수많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막 5:31에 의하면 돼지떼는 약 2천 마리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돼지 2천 마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Jesus released the demons and sent them into the pigs in order to save the soul of demon-possessed men in the region of Gadarenes. The whol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ied in the water. According to Mark 5:31, the herd of pigs were about two thousand in number. However, the fact that Jesus saves a soul cannot be compared with two thousand pigs because a soul is very precious.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무런 쓸데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돼지 한 마리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Nevertheless, people do not think that way. They think that even a pig is too precious to compare with a demon-possessed man and a useless person.

그러나 한 영혼이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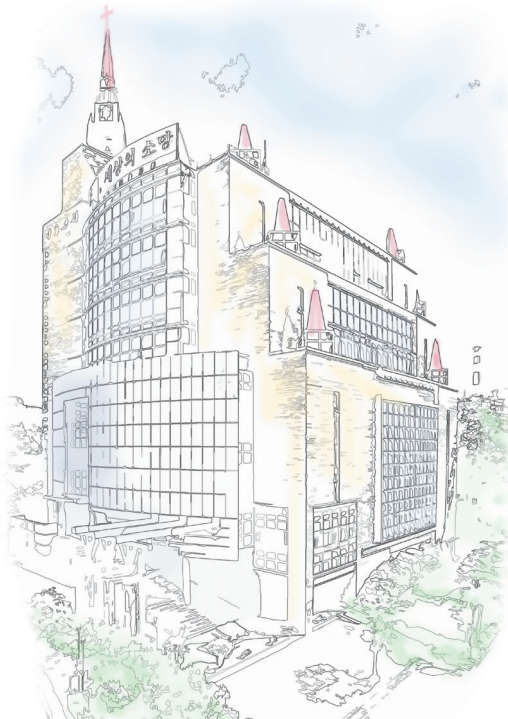
But, how much wonderful and important is it that a soul comes out of the demons, returns to Jesus, and recovers the image of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구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Just like Jesus, by making a bountiful investment for saving a soul,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used as a Christian in order to save a soul.



#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 홍해작전 승전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3년 홍해작전은 6월 6일(목)~ 25일(화)까지 17일 동안 18,531명이 참전하여 은혜중에 진행되었다.

박노철 담임목사와 박철현 교수를 강사로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출애굽기 4:20)란 주제로 주옥같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홍해를 건너온 서울교회 성도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범함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약속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예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각 교회학교 백일장과 7행시, 영문6행시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6행시, 7행시

- 대상 : 정예흔 (유년부 3-2), 박민수 (중등부 2-3), 김장섭 (13교구) 장경원 (6행 : 영어예배부)
- 금상 : 장해라 (초등부 6-4), 김성은 (청년1부),

윤갑숙 (6행:영어예배부)

- 대상 : 김민선 (유년부 2-3) 장해운 (유년부 2-3) 황두률 (6행:중등부 3-3) 문주영 (고등부 3-2) 오유록 (12교구) 임상현 (12교구)
- 대상 : 유동인 (초등부 4-1) 박세연 (초등부 4-2) 노서진 (6행:초등부 5-1) 윤영은 (중등부 1-8) 김민주 (중등부 2-2) 김정연 (중등부 3-6) 이다현 (청년 1부) 양원호 (1교구) 전인화 (2교구) 윤금자 (2교구) 강은정 (6행:12교구)

### - 백일장

- 대상 : 옥유진 (초등부 5-1)
- 금상 : 박주원 (유년부 3-5)
- 대상 : 김재령 (초등부 6-5)
- 대상 : 김민지 (초등부 6-5) 진상윤 (유년부 2-5) 박승현 (초등부 6-6)

### - 그림그리기

- 대상 : 강리나 (초등부 5-1)
- 금상 : 윤시현 (유년부 1-3)
- 대상 : 임하린 (유년부 2-4) 최희연 (고등부 2)
- 대상 : 윤가현 (유치부 7세) 김민우 (유년부 3-4) 전미정 (고등부 3-2)

##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주일 I · II · III부 예배-성찬식/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린다.

## 제 5회 장로교의 날

### -2013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한국장로교회- 7월10일(수) 오후7시 / 잠실 올림픽 홀(올림픽공원 내)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다체제의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 및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장로교 성도들이 모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회로 모이고 있는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올해도 계속된다.

이번 제5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수) 오후7시 잠실 올림픽홀(올림픽공원 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과 연합정신의 구

현, 나눔과 섬김 실천을 이변 행사의 방침으로 세워지며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서울교회는 찬양대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서울교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되다

### -아시아교회 지도자 포럼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장신대 루스홀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제3차 로잔대회에 국가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것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도자 및 다른 대륙지도자 200명과 박해받는 교회 지도자 100명이 모여 기도와 성경연구 그리고 자국복음화 전략을 세웠다.

한국교회 목회를 배우겠다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장신대 박보경 교수를 비롯한 4명이 팀이 되어 한국교회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부산과 청주에 있는 두개의 중형교회와 한국의 모교회인 새문안교회와 짧은 역사 속에서 대표적 모범교회로 성장한 서울교회 목회 철학이 이 자리에서 소개되었다.

서울교회는 ABC 3PR 즉 열렬한 기도 (Ardent Prayer),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Consistent Program)으로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모범교회로 발전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보고된 것이다.

이 포럼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는 강해설교모범을 제시하고 성경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 신앙강좌 2부 수료자 명단

강신행 구성형 구연복 김경래 김만운 김미선 김미성1 김선영 김성준 김수정 김양경 김연옥 김정숙 김정자 김종우 김종철 김지은 김철문 김태욱 김해수 김희영 류기승 문분순 문옥희 박공순 박광수 박귀선 박상운 박은정 박인규 박현영 박화실 백경애 서은석 선병욱 안준홍 안홍희 오민세 오세백 원명희 유덕자 육순자 윤금숙 윤진숙 이갑수 이경화 이근홍 이덕번 이미연 이선자 이영재 이우식 이우성 이은희 이학주 이한룡 장미례 장형심 장호영 전용찬 전화진 정정숙 정치는 조복자 조봉자 진교남 최정환 최주희 최향숙 하숙 홍현미 황현숙

## 제 3기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 7월7일(주)부터 접수 시작

- \*접수일시: 7월 7일(주)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
- \*모집 인원: 선착순 45명 (초등학교 1-6학년)
- \*신청 장소: 1층 서적부 앞 테이블
- \*3기 주제: 순종, 질서
- \*수업시간: 학기 중 매주 토요일 오전 9:30-12:30
- \*개강일: 9월 7일 토요일
-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참조





# 승전 나팔소리



하영수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2013년에도 홍해작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인원 18,531명의 성도와 4,500여대의 차량이 동원되고 5,600여명의 가족이 만나회를 채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참전했다는 성취감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기쁨, 날마다 예쁜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출근과 등교를 앞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빵 한 조각과 한 잔의 우유로 만나회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가족간의 사랑의 대화들은 아름다운 낙원을 연상케 했습니다.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는 주제와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드리고 능력의 칼도 사랑과 절제의 칼집이 없으면 많은 사

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실패의 쓴 잔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놀라운 교훈, 그리고 성도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비범이 감추어져 있고 기도의 응답이 침묵으로 돌아와도 그것은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보았다면 가로막힌 홍해와 추격해 오는 적의 병거가 있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만 믿고 두려움에 떨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기보다 소고와 복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도 목이 마르고 음식이 없어 굶주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원망대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깊은 탄식과 회개를 드림으로써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승전의 나팔소리가 가까울수록 성도의 심령에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곳 저곳에서 글짓기와 그림 그리는 모습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의 손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교회는 더욱 평화롭고 은혜로운 향기로 퍼져 나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박철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이끌어 주신 오세광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 인도하신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예쁜 선물을 나누어 주신 지도 교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슴마다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결심과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은 향기롭고 환희에 찬 서울교회만의 유일한 행복으로 초대 받은 홍해작전이었습니다.

## ■ 7행시, 6행시 대상

하 : 하나님을 향한  
나 : 나의 마음, 새벽마다 기도드리니  
님 : 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의 : 의로우신 하나님의 소망  
지 : 지혜의 생각들,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  
팡 : 팡팡 터지니  
이 : 이 얼마나 감사한 홍해작전 인가!

정예흔 (유년부)

하 : 하나님 아버지! 이번 홍해작전에  
기도합니다  
나 :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님 :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 : 의롭게 해주옵소서  
지 : 지혜와 생명의 양식을  
팡 : 팡! 팡! 터트려 주시옵소서  
이 : 이 하나하나가 사람에게 중요하듯  
홍해작전 하루하루가 중요케 해주십시오

박민수 (중등부)

하 :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나 : 나의 앞에 놓인 홍해 건너기 위해  
님 : 님 계신 성전으로 종종 걸음 옮길 때  
의 : 의로우신 나의 주님 두팔 벌려  
지 : 지극하신 사랑으로  
팡 : 팡파레를 울리시며  
이 : 이번에도 너의 홍해 갈라졌다 하시네

김장섭 집사 (13교구)

E : Exalted one,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X : Xylophone with which we awaken our praises to you  
O : Our hearts are fixed on your steadfast love  
D : Dedicating our lives to your forever  
U : Upon this rock, our redeemer, we build our foundation  
S : Savior Jesus Christ, we exalt your name in the highest.

장경원 집사 (영어예배부)

## ■ 글짓기 부문 대상

### 홍해작전

옥유진 (초등부)

서울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새벽기도 홍해작전 어른 아이 누구든지 홍해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6월6일 첫 번째 설교 제목인 커튼 속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박철현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셨다. 하나님께선 커튼 속에서 침묵하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스티커를 받았는데 같이 영광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집에 갈때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일도 잘 생각으로 부풀었다. 새벽에 가서 그런지 차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행복한 꿈 단잠에 취했다.

홍해작전이 재밌었다. 작년에는 홍해작전에

갔을 땐 매일 잠만 자고 라면만 먹고 왔다. 이전 좀 커서 말씀도 잘 듣고 눈을 번쩍 뜨고 들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해야 천국을 간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돈,공부론 천국을 갈수 없다. 내일도 꼭 간다는 마음으로 밤잠을 잤다. 엄마가 깨워주셔서 다행히 홍해작전에 갔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이러니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제목 은혜 받았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라는 찬송도 너무 좋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찬송 너무 좋아서 집에서 피아노도 치면서 노래도 불렀다.

이제는 매일매일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잠이 떨어져 남들보다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

## ■ 그림그리기 부문 대상, 금상



대상 : 강리나 (초등부)



금상 : 윤시현 (유년부)



# 에바다부 홈커밍데이



임규현 목사  
(에바다부 지도)

에바다부는 오늘 주일 오전 11시 20분 예배와 오후 2시 30분까지 홈커밍데이 행사를 갖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에바다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거나 떠난 농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자리로 이날을 전도의 날로 정하여 친구나 주변 농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농인 청년부에서 단막극과 수화 찬양 등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드리 고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출석을 못했던 농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뜻깊고 은혜 넘치는 행사가 되며 에바다부가 농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 신앙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다음 세대에도 굳건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의 도움을 원합니다.



## ■ 절전의 생활화 ■

우리나라 원전가동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올 여름은 특별히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실내온도는 26도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각 부서에서도 실내 온도가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기 바란다.

## 2013년 6월 학습,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7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3년 세 번째 학습,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김이규,김민아,박광훈1,박대서,박승수,박윤나, 이현주14,장형준1,홍경아,송지혜1,이연희2, 이창재,박은주2,송은정,유재형1, 계 15명
- 입교자 : 김 윤,백지연,신효빈,이경빈,이주영7,장소영, 한현지 계 7명
- 개종자 : 박관욱 계 1명
- 학습자 : 김영희14,노정기,박정훈,오수민1,이상의, 이하영,이혜경8,임서현,임재현1,전주익, 정영기1,정은선2,좌은영,차주연1,한원준, 허인희,홍미란1, 계 18명
- 유아세례자 : 김선후,김예쁨,김하윤1,노진우,이은유1, 정소영2,주하연 계 7명

총 48명



## 교회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금) 비전홀에서 우리교회 원로, 은퇴 장로(7분)와 시무장로(11분)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박노철 담임목사는 시편34:1~4, 8~9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과 봉사의 본을 보이신 은퇴장로님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장로님들의 노년의 건강을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이응선 원로장로는 외부 식당에서 모임으로 헌금을 낭비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것을 말하였다. 또한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들에게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보다 더 따뜻한 환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은퇴한 장로 또는 무임장로들에게는 적절한 교회봉사의 기회를 마련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회연합과 부흥에 앞장서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광신 원로장로는 시무장로들의 초대에 감사하며 가을에는 은퇴장로들이 시무장로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오정수 장로가 은퇴장로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회서기인 노문환 장로가 은퇴장로님들의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의 기도로 아름다운 장로 간담회를 마쳤다.

## 중정

■ 이준영 원로목사는 7월1일(월) 미래한국 미디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3일(수) 전국장로연합회수련회 주제 강연을 한다. 6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와 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연주회 : 4교구 박찬호 성도 (박광서 집사,백경화 집사 장남) 28일 서울오케스트라와 협연 KBS홀  
■ 공연 : 3교구 이승현 성도 오네긴 (Onegin) 7.6(토)~7.13(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 주간식당봉사 : 도르가 전도회(6.30) 루디아전도회(7.7)  
■ 금주의 식사 : 서문석 장로 한춘홍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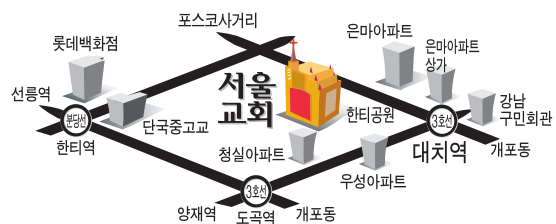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3년 흥해작전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순종하는 자가 얻는 승리로 총만 할 수 있도록
2.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맞는 맥추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총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3. 서울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존경과 이해로 아름답게 협력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 벽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